

언어구분 KOR

논문구분 원저/구연

논문분야 골절

논문제목 장골 간부 골절/불유합 치료에서 이중 금속판 고정술의 유용성

영문제목 **Usefulness of dual plate fixation in treatment of fracture/nonunion of long bones**

발 표 자 김철진

책임저자 정양국

저 자 김철진, 정양국

기 관 명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

서론 : 장골 간부의 외상성 혹은 병적 골절이나 절골술 후 발생한 불유합/지연유합, 내고정물의 이완/파단, 골질악화 등을 동반한 환자에서 골유합을 얻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. 저자들은 내고정물의 이완/파단, 골질악화 등을 동반한 장골 간부의 외상성 혹은 병적 골절/불유합 환자에서 시행한 이중 금속판을 이용한 내 고정술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

재료 및 방법 : 장골 간부의 외상성 혹은 병적 골절이나 절골술 후 발생한 불유합/지연유합, 내고정물의 이완/파단, 골질악화 등을 동반한 환자에서 골유합을 얻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. 저자들은 내고정물의 이완/파단, 골질악화 등을 동반한 장골 간부의 외상성 혹은 병적 골절/ 불유합 환자에서 시행한 이중 금속판을 이용한 내 고정술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

결과 : 이중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 후 평균 7.8주 후에 15예에서 골유합을 얻었다. 전완부의 악성조직구종으로 이전에 방사선치료를 받았던 병적골절 1예에서 골유합이 진행되지 않고 내고정 금속판 주위골절이 병발하였으며 대퇴골 단축 및 각 변형에 대하여 교정 절골술, 자가장골편을 이용한 골 연장술을 시행했던 1예에서 부분적인 골 유합은 진행되었으나 이식된 동종 망상골의 흡수로 인한 골 결손부가 잔존하는 소견을 보였다. 추시기간 중 고정의 소실이나 내고정물의 이완/파단 등의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.

결론 : 장골 간부 골질의 악화나 병적골절을 동반한 골절/불유합에 대하여 시행한 이중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은 골유합이 진행되는 동안 견고한 내고정을 제공하여 골유합을 얻는데 있어 유용한 술식으로 사료된다. 이때 국소의 환경에 따라 골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골 이식술이나 고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cable 보강술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.

acknowledgment :

불유합/지연유합, 장골 간부, 이중 금속판 고정술